

“출연기관 채용비리 밝혀야”

박용근 도의원, 전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 임용 관련 ‘허위 경력 바탕 입사’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장수군)의원이 21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도 출연기관인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 임용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끈다. 박용근 의원에 따르면 해당자는 전주사에서 6급으로 근무 중 명예퇴직 한 자로 2015년 4월 전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책임급 1명을 공개모집에 지원했고, 당시 책임자급 자격기준은 5급 이상으로

근무한 자인데 해당자는 5급 근무경력으로 볼 수 없음에도 채용돼 근무하다가 2017년 11~12월에 진행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에 적발됐다. 하지만 도 감사관실은 부정응시자인 해당자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고 채용을 담당한 직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처분했다. 해당자는 징계가 내려진 2018년 2월 전인 1월 1일에 자진퇴사해 징계를 피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이후 해당자는 생물산업진흥원에서 근무한 2년 6개월의 경력을 바탕으로 2018년 8월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직에 지원해 합격하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용근 의원은 “도 감사관실의 감사 처분과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 채용과정에 있어 문제점들이 많아 채용비리가 아닌지 전반에 걸친 조사를 진행해야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21일 군산시에 소재한 전북 수산물안전센터를 방문해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도의회 환복위, 현장의정활동 전개

전북 수산물안전센터 방문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21일 군산시에 소재한 전라북도 수산물안전센터를 방문해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환경복지위원들은 전북도 수산물 안전센터 운영 및 주요 현안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요시설을 점검한 후, 효율적인 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해상 풍력 및 태양광 설치에 따른 어업 생태계와 어업인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토론을 갖고

지속적인 연구·분석과 모니터링으로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실험실, 분석실 등의 내부시설을 둘러본 뒤, 최근 수산물 수입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전성 담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전북도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 마련에 매진해 주길 당부했다. 또한, 이명연 위원장은 어업지도선 단속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법어획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활동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며 “지역어업인의 건전한 어업질서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강염병 의심되면 '1339'로

민주 도당, '의장단 선출 논란'

김재천 완주군의회 의장 제명

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무소속 의원과 결탁 논란을 빚고 있는 김재천 완주군의회 의장이 도당의 '제명' 처분을 받았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도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김재천 의원에게 최종 제명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도당은 또 최찬영 의원(민주당 비례)도 같은 해당행위로 함께 제명 처분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완주·진안·무주·장수위원회가 김 의장과 최 의원을 지난달 열린 완주군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의원과 결탁했다며 '해당행위'로 청원을 접수해 이루어졌다. /뉴스

도의회 상임위 하반기 업무보고

'고용안정사업단 역할, 업무보고서에 언급 없어'

농신경위, 일자리경제본부 업무보고 청취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21일 제374회 임시회 상임위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라북도 일자리경제본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0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농산업경제위원회는 각 기관들의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는 한편 하반기 도정 목표와 중점과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철수 위원장(정읍1)은 고용안정사업단이 자동차용합기술원에 신설되어 있는데 관련업무 추진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업무보고서에 언급이 없고 역할이 자동차와 기계분야에 한정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사업단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일자리경제본부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전북 경제활동의 한 축을 담당하고 미래를 책임져야 할 20대 청년들의 타 시·도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전북을 떠나는 청년들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뿐만 아니라 타 시·도 청년들이 전북도 청년정책을 접하고 교육이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전북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정부가 기존 비수도권 지역에만 지원했던 유턴기업 보조금을 수도권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만약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전북도의

두세훈 의원 “타 시도 청년 전북도 청년정책 접하고 일자리 구하기 위해 전북 찾을 수 있는 여건 만들어야”

국주영은 의원 “전통식품 가공산업에서 도내 생산 농산물 활용 식품 제조 이뤄질 수 있는 여건 조성”

기업유치에 더욱 어려움이 생길 것임을 염두하여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기업유치 실행 전략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한기 의원(진안)은 지역의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등에 일자리가 많이 존재하는데 단지 근무 여건이나 보수 등이 열악해, 취업을 회피하고 편한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여러 정책 추진에도 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일자리와 창업 지원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훈열 의원(부안)은 기업투자유치 시 형식적인 투자상담과 기업유치활동에 그치지않고 핵심타깃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유치가 가능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송성환 의원(전주7)은 전북도의 기업유치 전략을 보면 삼성과 같은 대기업 유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하고, 삼성과 같은 대기업유치가 다른 기업 몇 십개를 유치하는 것보다 지역경제발전에 효과가 크므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기업유치에 임해 줄 것을 주문하고,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사업 추진 시 도내 주요대학 등과 연계해 관련 학과를 더 많이 개설하여 인력을 양성해서 청년취업지원과 기업유치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전통식품 가공산업에서 전북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를 개척해주고 관련기업들은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받아 전북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호윤 의원(전주1)은 전북도가 추진하는 많은 일자리, 기업유치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만들거나 기업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인정하고 좀 더 많은 고민을 통해 전북도가 추진 중인 수직, 수백가지의 일자리, 기업유치, 취업지원 사업들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취업을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文 정부 성공·정권 재창출 이뤄낼 것”

민주 한병도 의원, 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

재선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을)이 8월 29일 열리는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한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수석을 역임했던 한 의원은 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에 자신을 바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 의원은 “청와대에서

정부와 여당을 잇는 다리가 되었던 것처럼, 청와대와 여당, 대통령과 국민, 여당과 야당을 연결하는 민주당의 정부수석'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개혁과제와 국정과제를 완수▲위기를 이겨내고 새롭게 승리하는 민주당 창출 등 두가지를 약속했다.

그는 “2016년 총선승리와 2017년 대선승리, 이어진 지방선거와 또 한번의 총선승리는 우리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성과이자 패배의 역사도 기억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잇따른 승리로 인해 자칫 자만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국민의 뜻을

잘 받들고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질문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레아 “다음 대선에서 다시 승리할 수 있으며 역사의 발전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한병도 의원은 “176석의 책임 여당 민주당이 국민이 준 책임을 완수하도록 저 한병도가 제일 앞에서 달려겠다”며 “정부와 청와대, 국회를 연결하고 대통령과 민주당원을 하나로 잇는 다리가 되겠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지난 8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 달려온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 성공과 민주당 정권 재창출, 그 길에 나를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